

문제 1

1. 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는 개인들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주장 =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근거 =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못합니다. 제시문에 기반한 근거서술이 되지 않음으로 큰 감점입니다.

2. “반면, 제시문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공존한다고 본다.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전체의 행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에서의 행복증진은 결국 공동체에 속해있는 개인들의 평균적인 행복증진과 영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오류입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의 행복의 합이 커짐에 따라 행복이 침해받을 수 있기에 (나)와 같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교기준의 오류입니다.

문제 2

1. “제시문 (라)의 도표는 27개 나라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의 Y축과 X축은 산술평균 즉, 각각 응답자 전체의 답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즉, 그 점수와 실제 점수간의 차이정도를 클수록 높은 값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의미없는 진술이므로 생략해주세요.

2. “즉, 국가군 B는 산술평균과 표준편차가 둘 다 높고, 국가군 C는 산술평균과 표준편차가 둘 다 낮다. 이는 국가군 B는 전체 행복도는 높지만 행복의 격차가 심함을 보여주고, 국가군 C는 전체 행복도는 낮지만 행복의 격차가 적음을 보여준다.”

이도 반복이고, 의미 없는 서술입니다. 사실 마지막 한문장으로 이 한문단에서 하고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3. “제시문 (나)는 전체 행복도가 높은 낮은 개별 편차가 심하면 좋지 않다고 본다. 이 제시문에서의 남자가 하는 행동은 남자의 행복도를 높여준다. 하지만 여자의 행복도는 떨어뜨린다. 결국 이러한 격차는 전체 행복마저 깨뜨리려 한다.”

전체의 행복마저 깨뜨린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비약이구요.

4. “문제는 더욱 커져 국가의 존재마저 위협 할지 모른다.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강요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제시문에서 나온 내용에서 지나친 추측을 통한 서술입니다.

5. “. 제시문(다)는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의 총합이 높을수록 옳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일 경우, 개개인 각자의 행복도 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행복도의 총합이 더 우선시된다.”

이 때도 총합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는 맞지만, 왜 표준 편차가 낮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 서술이 빠져 있습니다. 표준편차가 낮고, 총합이 높아야 말씀하신 B국과 대응 될 것입니다. 주장에 따른 근거서술 부족입니다.